

광주에 첫 동물화장장 들어서나...법원 "공익적 필요"

광산구, A사 제기 '용도변경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 패소 판결 확정판 사업 추진 전망...市 주도 장묘시설은 '답보'

광주 광산구가 지역에서 처음으로 동물화장장 건립을 추진한 민간 사업자에 대해 허가를 내주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광주지역에 첫 동물화장장이 들어서게 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법 행정1부(박상현 부장판사)

는 29일 애완동물 장례업체 A사가 광산구청장을 상대로 낸 '용도변경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A사는 화장장을 포함한 동물 전용 장례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지난 2022년 광산구에 용도변경 허가신청을 냈으나 광

산구 도시계획위원회의 부결로 무산돼 이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광산구는 "환경오염 문제와 경관 훼손 등 피해가 우려돼 입지가 적절하지 않다"는 등의 이유를 내세우며 용도변경을 불허했다. 이번 재판에서 A사는 "동물화장장에서 대기오염을 제외한 어떤 오염원도 발생하지 않고 주변 경관을 훼손하지도 않는다"며 "건축물로부터 300m 이내에는 인가 밀집지역도 위치해 있지 않다"며 광산구의 위법행정을 주장했다.

현장 검증을 실시한 재판부는 동물화장장 주변 인가가 7가구에 불과해 밀집지역에 해당하지도 않고 다른 마을은 300m 이상 떨어져 있어 입지 기준을 충족했다고 판단했다. 또 주변 버스정류장이나 자동차 학원 등은 집합시설에 해당하지 않아 동물보호법상 동물장묘시설 제한 대상도 아니라고 봤다. 동물화장장의 먼지 발생량, 다른 환경오염 발생과 경관 훼손 우려 등 불허사유도 합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주민 반감이 허가 여부를

판단한 중요한 기준으로 보이는데, 동물 장례시설을 혐오·기피 시설로 볼 수 없다"며 "동물 장례시설이 주민에게 끼치는 영향이 제한적이고, 광주에 동물장묘 시설이 없는 점을 고려하면 장례식장 신청을 허가할 공익상의 필요성도 있다"고 판시했다. 이와 관련, 광주시는 민선 8기 들어 가정 시장의 공약 중 하나인 '동물장묘 시설' 조성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사실상 멈춘 상태다. 사업의 골자는 북구 영락공원에 화장

장 2기를 설치하고 2026년께부터 운영 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광주시는 지난 5월 연구 용역까지 마쳤다. 그러나 연구 용역 결과 광주 인근 민간 화장시설 개소수와 가동률 등을 고려할 때 장기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면서 사업 추진 동력을 잃었다. 한편 행안부 통계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5월 기준 광주시 반려동물 양육가구는 13만5천749가구, 반려동물 양육 인구는 29만4천576명, 반려동물은 17만9천89마리다. /안재영 기자

'마세라티 음주 뺑소니' 67시간 도주 끝 검거·구속

경찰 추적 피하려 대포폰·현금 사용...추가 의혹 속 수사 확대 '주목'

음주운전을 하다 오토바이를 추돌해 2명의 사상자를 낸 뒤 도주한 피의자가 67시간 만에 검거, 구속됐다. 경찰은 도주 경위 및 행적 등에 대한 추가 수사를 검토 중이다. 29일 광주 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특정범죄가중처벌대상 도주치사 혐의로 김모(32)씨와 범인은닉도피 혐의로 오모(33)씨를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 김씨는 지난 24일 오전 3시11분께 광주 서구 화정동 한 도로에서 마세라티 차량을 추돌하고 구호 조치 없이 현장에서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A(23)씨는 중상을 입었으며, 함께 타고 있던 그의 여자친구는 현장에서 숨졌다. 김씨와 동장 관계인 오씨는 차명 휴대 전화를 제공하고 도주를 도운 혐의다. 김씨는 사고 당일 오전 1시께 광주 서구의 한 식당에서 지인 B·C씨와 술을 마신 뒤 운전하다 오토바이를 추돌, 사고 현장에서 500m 떨어진 곳에 차량을 버리고, 함께 도로를 질주하던 B(30대)씨의 차량을 타고 대적으로 도주했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경찰의 추적을 피하려 휴대전화 전원을 끄고 B씨의 휴대전화를 사용해 해외 출국 항공권까지 예약했다. 대전에서 B씨와 헤어진 김씨는 대중교통과 현금을 사용해 경찰의 추적을 피했다. 경찰은 휴대전화 위치와 CCTV를 추적

해 인천국제공항에서 김씨의 마지막 행적을 파악한 후 B씨의 진술과 김씨가 서울 한 치과에서 진료를 받았던 기록을 근거로 수색을 진행, 지난 28일 오후 9시10분께 현금과 대포폰을 받기 위해 길가에 서 있던 김씨와 조력자 오씨를 검거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람을 충격한 사실을 인지했지만 음주 상태이기도 했고,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려 무서워 도주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위드마크 기법'을 통해 사고 당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조사 중이며, 도주를 도운 B씨는 범인은닉도피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다. 이와는 별도로 김씨의 직업이 불분명하고, 태국 장기 체류 이력과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광주 한 행정복지센터 인접 등과 관련해 경찰은 추가 내사 착수 여부를 살피고 있다. /주성혁 기자



'마세라티 음주 뺑소니' 운전자의 도주를 도운 혐의를 받는 오모씨가 지난 28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김애리 기자



29일 오전 광주 동구 무등산 중심사 내 공장간에서 불이나 소방당국이 진화 작업을 하고 있다. /김애리 기자

광주 중심사 화재...5시간여만 진화

광주 대표 사찰이자 광주시 지정 문화재인 중심사에서 화재가 발생, 일부가 소실됐다. 29일 광주시 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55분께 중심사 식당 건물(공양간)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불은 신고 접수 5시간20분여만인 오후 3시15분께 완전했다. 진화를 위해 소방 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했고 헬기 등을 투입했다. 이 불로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불이 난 식당 등 건물 2동이 전소됐다. 다행히 국가 보물 131호 철조비로 지나불화상 등 주요 문화재는 무사하다. 화재는 용접 작업 중 샌드위치 패널에 불꽃이 튀어 난 것으로 잠정 조사됐다. 소방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재산 피해 규모 등을 조사 중이다. /안재영 기자

순천시 여고생 '묻지마 살인' 30대 구속

순천시, 내일까지 피해자 추모 분향소 운영

순천에서 일면식 없던 여고생을 살해한 30대가 구속됐다. 29일 순천경찰서 등에 따르면 살인 혐의를 받는 A(30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최근 발부받았다. A씨는 지난 26일 오전 12시44분께 순천시 조례동 한 거리에서 B(18)양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후 도주한 A씨

는 만취 상태에서 거리를 배회하다 행인과 시비가 붙었는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붙잡혔다. 조사 결과 A씨와 B양은 서로 전혀 관련이 없는 사이로, 경찰은 '묻지마 범행'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초기 수사 단계에서 A씨는 "술을 너무 많이 마셔 기억이 안 난다"며 범행을 부인했으나, CCTV 영상 등의 증거

가 나오면서 혐의 일체를 인정했다. 이와 관련, 전남경찰청은 30일 A씨에 대한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열어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심의할 계획이다. 한편 순천시는 이날 B양이 사망한 조례동 한 거리에 추모 분향소를 설치했다. 분향소는 시민들의 요청에 의해 조성됐으며, 오는 10월1일까지 3일간 운영된다. /순천=양홍철 기자

"장애인 교정시설 화장실에 편의시설 설치해야"

법원, 수형자 제기 국가배상 청구 승소
장애인 수형자의 화장실에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교도소의 조치가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순천지원 민사3-3부(유철희 부장판사)는 최근 장애인 수형자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배

상금으로 300만원 등을 산정, 지급할 것을 주문했다. 또 국가(법무부)에는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 장애인 수형자 전담 교정시설 화장실에 편의시설을 설치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교통사고로 척수가 손상돼 사지가 마비된 중증 장애인으로, 2015년 징역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입소

했다. 그는 수년간 핸드레일(손잡이) 등 화장실 편의시설이 갖춰지지 않아 불편을 겪었다며 차별 시정과 손해 배상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따른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한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며 국가 책임을 인정했다. /안재영 기자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